

고요한 밤 기록한 밤 아기 예수님 본당 공동체 왔네



실로 끌려갈 처지에 불안과 초조함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성에 가득한 어머니가 아들 곁에 다가가 아들을 안아주며 엄마가 같이 가 줄게 하였습니다. 불안하지 말고 동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렇게 불안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죽음을 눈앞에 둔 나치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온 세상은 어머니 같은 모성이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으며 우리 시흥4동 공동체도 아기 예수님 같은 화합을 탄생시킬 어머니가 되어 일치와 화합이 오실 구유를 만들어야겠습니다.란 강론 말씀과 성체 분배 전 유아 방 어린이들에게 성탄 축복 안수까지 해 주셨다. 우리 공동체에 마음 깊이 오신 아기 예수 오신 성탄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해



서울대교구 시흥 4동 성당은 성탄 전야 미사를 12월 24일 오후 8시 성전에서 교우 420여명이 가득 메운 가운데 주임신부님의 아기 예수 안착과 분향 경배의 이어 참석한 전 신자들도 경배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메시아 탄생을 기쁜 미사 전례를 봉헌 후 성가대 찬양 성가와 중고등부 멋진 자축 울동을 보여 주었다.

320석 기준 좌석과 보조석 의자가 없어 입당하지 못해 성전 복도에 입석한 성탄 전야 미사는 먼저 구유 예식으로 성전 조명을 소등한 상태에서 주임신부님께서 아기 예수를 품에 모시고 입장하여 구유에 정성스럽게 안착과 동시에 점등으로 경배 순서가 주임신부님과 수녀님 전 신자들의 시작과 분향 후 미사가 집전되었다. 말씀의 전례인 복음 후 강론에서 주임신부님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성가정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것은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 때 한 가정에 둘째 아이가 죽음의 가스

중고등부는 몇 일간 합동으로 연습한 “세상의 빛”이란 놀라운 수화의 몸동작을 울동에 맞추어 연출한 중고등부 새싹들에 교우들은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이어 성탄 전례 맞이를 위해서 수일간 연습하여온 성가대는 성탄 전례 성가와 축가를 “즐거운성탄” 화음 일치해 기쁜 마음으로 합창을 하였다. 쌀쌀한 날씨와 상공에는 미국 통신 감청 경찰기 리벳조인트(RC-135W)기와 지상 감시 경찰기 E-8C 조인트스타스(J-STARS) 한반도 돌고 있지만 기쁨과 평화를 주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본당 마당에는 교우들 성탄을 축하하면서 남성 구역분과에서 준비한 따뜻한 차와 여성 구역분과에서 준비한 인절미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운 성탄 행사를 마쳤다.

